

<p>믿음 지혜 ... ..</p>	<h1>BUDDHANARA</h1> <p>부다나라 (불국사)</p>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시 :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 전법기도법회, 교리탐구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오전 11시-오후 1시  
 Pinckneyvill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5

부다나라(불국사) 후원회 -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Every Tuesday 6:30 pm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Intensive Meditation: Fourth Tuesday of the Month (매달 넷째주 화요일 저녁) 7:00 PM – 10:00 PM  
 Movie Night: First Thursday of the Month (매달 첫째주 목요일 저녁) 7:00PM – 9:00 PM

이달의 법구경

시작없는 영원한 공(空) 향해  
 세속 풍요 마다하고,  
 자유 찾아 하늘로 솟는  
 삶의 바른 양식 지닌 현자의 길,  
 그 누가 따를 수 있을까?  
 현자의 뒤 따르기는 공중 나르는  
 새 쫓기 보다 더 힘든 다네.

Who can trace the path of those who know  
 the right food of life and, rejecting over-  
 abundance, soar in the sky of liberation, the  
 infinite Void without beginning? Their  
 course is as hard to follow as that of the birds  
 in the air.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1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 경전공부도 수행...이것이 바로 올바른 간경수행

간경수행은 부처님이 설한 경전을 수지독송함으로써 그 경전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수행이다. 초심자의 경우 하루에 빠짐없이 30 분 이상 경전 읽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무엇이 간경수행인가

간경(看經)은 말그대로 경전을 보는 것. 참선, 염불, 주력과 함께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4 대 수행법 중 하나다. 정기법회나 기도, 정진법회시 독경의 형태로 이뤄진다. 흔히 독경을 의미도 모르고 입으로만 송한다 하여 간경으로부터 따로 떼어놓고 정의하는 곳도 있지만 이러한 독경의 형태는 잘못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독경 역시 그 의미를 알면서 경전을 보고 그 의미를 간하여 내 것으로 삼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간경에는 소리를 내어 경전을 송하는 독경을 포함하여 소리없이 마음속으로 읽는 것 외에 경전공부하는 것은 물론 그 경전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하는 것도 포함된다. 경전의 말씀과 의미를 서사하여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사경도 간경의 범주에 들어간다.

간경수행은 부처님이 설한 경전을 수지독송함으로써 그 경전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전을 읽음으로써 그 뜻이 마음속에 드러나, 그 마음을 밝히면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전을 펴서 마음을 본다 하여 ‘피경조심(披經照心)’이라 한다. 그 결과 마음이 상통해 마음이 밝아지면 경계도 함께 밝아진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이 마음속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실천할 때만이 경전의 가르침이 진실로 살아나게 된다. 특히 경전의 가르침이 체화되면 그 경전구절은 망각하지 않고 마음 속에 오래 간직하게 된다. 즉 간경을 통해 외운 경전 구절은 잊혀지지 않는다.

신도들과 범회를 볼 때 간경으로 시작하는 서울 성림사 주지 광용스님은 “경전은 중생심을 벗고 불성을 드러내는 길로 향하는 나침반이자 기준 역할을 함으로 다른 모든 수행의 옳고 그름은 이 경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그 기준점을 삼아야 한다”며 “모든 수행에 들어서기 앞서 경전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깊게 담아둠으로써 수행 길을 옳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간경은 우리의 수행이 외도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잡아주게 된다”고 말했다.

#### ◇간경수행, 어떻게 하나

우선 경전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 독송해야 한다. 독송에 앞서 마음을 쉬고 심신을 안정시킨다. 산란한 마음의 작용을 멈추고 일심으로 정신을 가다듬는다. 마음이 무사하고 평정한 상태에서 경전을 읽어야 한다. 일심(一心)의 상태에서 경전을 독송할 때야만이 간경삼매, 독경삼매로 들어가게 된다. 내 앞에 부처님이 있다고 여기고, 부처님이 직접 지혜로운 법문을 내게 설한다는 생각으로 독경한다. 밝은 마음, 정성어린 마음, 공경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독송한다.

서원을 세우고 독송한다. 나의 무명과 업장을 소멸하고 내 마음의 평화는 물론 중생구제의 보살도를 다짐하면서 독송하는 것이다. 독송할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좌선을 한 자세나 장래합장한 자세, 또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단전에서 나오는 힘찬 목소리로 읽어야 한다.

간경수행에는 호흡도 중요하다. 규칙적인 호흡을 하면서 독경을 해야 한다. 통도사승가대학 강주 현진스님의 말이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간경(독경)을 매우 자연스럽게 한다. 중국의 한문에 4 성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지 중국인들의 독경소리는 노래같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자들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젊은 불자나 젊은 학인들은 잘 안하려고 한다. 대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맞는 박자를 개발하여 각 경전마다 독송법을 만들고 그것을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외에도 간경수행에 있어서 경전의 글귀나 간경하는 그 자체가 자기 마음과 일치해야 하고, 알음알이나 지식으로 경전을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처음부터 한 경전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경전을 읽어야 하며 초심자의 경우 하루에 빠짐없이 30 분 이상 경전 읽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아침에 읽는 경전은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요, 저녁에 읽는 경전은 조용하고 건강한 수면을 예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경하기 좋은 시간은 오전 3 시~오전 5 시, 오전 4 시~오전 6 시. 독송시간은 한번에 서너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상 읽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이다.

#### ◇간경수행의 효과

조계종 25 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은 간경에 세가지 공덕이 있다고 했다. 첫째, 불보살이나 호법신장의 가피를 입는다. 둘째, 망상을 버릴 수 있다. 셋째, 경전의 가르침이 마음에 젖어들어 그릇된 인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조계종 포교원이 발간한 불자 수행프로그램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적 측면의 간경수행 효과가 다양하다.

“마음을 잘 들여다보게 되었으며 마음이 안정되고 맑아진다”, “화를 내는 순간, 그 마음을 알아채는 것이 빨라진다”, “일상생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생긴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 상호가 원만해진다”, “탐진치 삼독이 점점 풀려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 간경의 대상

일체장경이 모두 간경의 대상이다. 경이나 율 뿐만아니라 논서도 간경의 대상이고 조사어록도 무방하다. 승가대학에서 배우는 <도서>, <절요>, <선요>, <서장>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았지만 간경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많이 간경하는 경전은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이다. <금강경> 간경은 30~40 분 정도면 마칠 수 있는 알맞은 분량이다. <금강경> 외에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은 간경의 출발이랄 수 있는 <반야심경>과 <천수경>이다. <법화경>은 독경 뿐만아니라 사경의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각경> '보안보살장', <화엄경> '보현행원품', <원각경>, <능엄경>, <육조단경> 등도 많이 독송되는 경전이다. [불교신문 2706 호에서 발췌]

## 성철 스님 지금 살아계셨다면...

### 상좌 원택 스님에게 듣는 성철 스님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종교인들이 사회의 잘못된 것을 고친다며 개입하는데 정치적인 결정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정교(政敎) 분리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영향력을 갖춰야지 현실에 들어가 개입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현실 정치에 지도해 줄망정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그런 정신을 견지하셨습니다."

종교가 화합과 치유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충돌의 요인이 되면서 평생을 청빈한 수행자로 살다간 성철 스님(1912-1993)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지난 24 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성철 스님의 탄생 100 주년을 1 년 앞두고 스님의 삶과 사상을 둘러보는 학술포럼이 열렸다. '퇴옹성철의 100 년과 한국 불교의 100 년'이라는 주제의 이 학술포럼은 올해부터 3 년간 열린다.

학술포럼을 주관하는 백련불교문화재단의 이사장이자 성철 스님의 상좌(제자)인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은 가장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 격동의 시대를 살다 가신 어른"이라면서 "스님이 불교 종단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님의 삶과 사상을 통해 바른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 일 기자와 만난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과 한경직 목사님,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 계실 때는 한국 종교가 서로 자기의 개성을 살리면서 남의 종교를 배려하는 종교 화합의 좋은 시절을 보냈다"면서 "하지만 요즘 종교 간 화평이 깨지면서 옛날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운 시절이 됐다"고 말했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드신 1993 년은 사회 지도층이 부도덕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던 때였는데 누더기 한 벌과 곱장 고무신 하나, 지팡이 하나만 남기고 떠나신 스님의 청빈한 모습이 큰 감동을 줬다"면서 "스님의 큰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세상에 전하지 못한 부족함을 늘 느끼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불교의 큰 별 성철 스님. 열반한 지 20 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그는 불자들 사이에 생생히 살아 있는 스승이다.

"어떻게 남에게 속아보셨는지 늘 '남을 속이면 안된다'고 주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도 속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심하고 3 일도 못 지키는 사람은 자기에게 한 약속도 못 지키는 자라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또 상좌들이 참선하는 모습은 좋아했지만 '본사(本寺) 주지도 안 된다. 말사(末寺) 주지도 안 된다'며 상좌들이 행정직에 앉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처럼 제자들에게 엄격한 스승이었지만 속정이 깊고 자애로운 분이였다.

"스님의 따님인 불필(不弔) 스님이 석남사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스님께서 어느 날 절 부르시더니 '석남사에 갔다 와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가야 합니까'라고 여쭈더니 '불필이 아는 스님이 죽었다'라며 모래를 씻어서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광명진언을 108 번 외우신 뒤 그 모래를 불필 스님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평소 부인에 대해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을 뿐더러 출가 후에는 부인을 찾아가시지도, 찾아오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부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스님이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정도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택 스님은 또 성철 스님이 필요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지닌 분이였다고 회고했다.

"1981 년 6 대 중정에 추대됐는데 그해 4 월 초파일 법어를 내리시는데 어려운 한문으로 된 법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 법어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자식 건방지다'라고 하시며 화를 내시더니 며칠 뒤 '이러면 됐다'며 한문 반, 한글 반인 법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반도 한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은 법어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그 자식 신경 쓰이게 하는 놈'이라고 야단치시더니 하루 뒤 한글로 된 법어를 던져 주시며 '이제는 됐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생각이 유연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면 내 주의, 내 주장을 잠시 접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목사들, 배타적 근본주의에서 문제 비롯”  
대형 교회 목사들의 '갈등 발언' 왜 계속되나  
개신교에 대한 실망감 실제 신자 수 감소로 나타나  
“타종교 비방 막을... 법적 장치 마련해야” 목소리도

지진도, 쓰나미도 하나님 안 믿은 벌이고, 한국사 반만년은 우상숭배 죄의 역사라는 몇몇 목사들의 독특한 해석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번 일본 도호쿠(東北)대지진 참사는 "우상 숭배와 무신론, 물질주의로 나간 데 대한 하나님의 경고"(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우상과 일왕을 섬긴 죄에 하나님이 '요것 봐라' 하고 혼드는 것"(강남교회 김성광 목사)이라는 발언은 사회적 공분을 샀다. 2005년 서남아시아 쓰나미 때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비슷한 말을 했다. "반만년 한국사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역사"라는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해 말썽이 된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개신교계 최대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길자연 목사가 한 것이다. 개신교 지도자로 통하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한 말이라 사회적 파장은 더욱 크다.

종교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들이 한국 개신교에 팽배한 보수적 근본주의에서 비롯됐으며 대형 교회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의 배타성과 공격성은 사회 통합을 해칠 뿐 아니라 종교의 존립 기반인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멸 행위라고 비판한다. 지탄받는 종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는 최근 이슬람채권법 반대에서 보듯 정치 개입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목사이기도 한 배덕만 복음신학대학원대 교수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대형 교회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보수성을 강화하면서 자기 이익에 맞는 정권과 밀월을 시작했으며, 현 이명박정부는 그 정점"이라고 분석한다. 교회가 장로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는 자신감이 지나쳐 오만과 독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종교사회학자는 "한국 개신교계는 그로 인해 이미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를 비판했다가 호되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실제로 개신교 인구는 줄고 있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개신교 인구는 10년 전인 95년보다 1.6%(14만 4,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천주교 인구는 74.4%나 급증했고, 불교 인구도 3.9% 늘어났다. 개신교계는 충격을 받았다. 성장을 거듭하던 교세가 처음으로 쇠퇴했기 때문이다. 개신교 내부에서 위기론이 나올 만큼 신자 감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개신교계의 발언과 행동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배 교수는 "특정 종교 권력이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포교를 막는 것은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국종교사회학회장인 김성건 서원대 교수는 "종교 관련 사회적 쟁점을 조율할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일본은 90년대 오진리교 독가스 살포 사건 이후 종교·사회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입안에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교회 안팎의 비판과 견제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기총 해체 운동이 대표적 보기다. 교회개혁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개신교 10개 시민단체는 '한기총 해체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1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표회장 금권선거 파동으로 내홍 중인 한기총은 도덕적 부패 말고도 근본주의적인 배타성과 지나친 권력 지향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2011년 3월 18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 [책갈피] 지진이 신의 경고? 유럽선 250년 전 "자연현상" 결론 난 이야기

일본 도호쿠(東北)대지진에 대해 목사 몇 명이 신의 경고라고 말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개신교 신자 중에서도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현대인들은 지진을 자연현상의 일부로 보는 과학적 사고방식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지진을 자연현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1755년 11월 1일 일어난 포르투갈 리스본대지진 때부터였다. 지난해 10월 출간된 <테라: 광포한 지구, 인간의 도전>(미래의 창 발행·리처드 험블린 지음)에 그 정황이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리스본대지진 때도 이번 도호쿠대지진처럼 높이 12m의 쓰나미가 몰려와 도시를 초토화했다.

당시 한 예수회 신학자는 지진의 원인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리스본 시민들의 가공할 죄악 때문이라고 했다. 예수회는 지진 발생 1주년에 최후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었고, 유럽의 개신교 논객들 중에는 가톨릭의 우상숭배가 신의 분노를 일으켰다고도 했다.

그러나 총리 품발 후작은 지진은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물질적 사건이라고 보았다. 그는 "리스본이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창의력"이라며 학자들을 동원해 지진의 원인을 조사했다. 존 미첼이라는 학자가 1760년 "지구상 특정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지진 활동이 더 활발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지진의 진원지가 포르투갈 연안 대서양 해상에서 1.6~4.8km 아래일 것으로 추정했다. 기독교 유럽이 지진을 인간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보는 해석을 그만둔 것이 이때다.

-2011년 3월 18일 조선일보에서 발췌-

### 대한불교 조계종 긴급 재난 구호 봉사대: 日 대지진피해 현장을 가다

- "쓰나미 휩쓴 자리, 참혹 그 자체!"

지난 18일 오전 11시경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선발대가 센다이 현장조사에 앞서 쓰나미 희생자를 위한 추모기도를 봉행했다.



은 마을이 시커멓게 변해 버렸다. 사람들이 살던 집들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자동차는 종이처럼 구겨져 사방에 널려 있었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일본 대지진 발생 후 8일 만인 지난 18일 오전 최대 피해지역인 센다이시 해안가 지역을 방문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 선발대(단장 묘장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재난영화에서 나올 법한 어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다. 하루 전 꼬박 10시간이 걸려 센다이시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선발대는 이날 오전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센다이 미야기노쿠 종합운동장을 찾았다. 이곳에 지진 대책본부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깔끔하게 정리된 임시숙소에서 삼삼오오 모여앉아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대피하고 있었다. 다행히 대책본부 인근 도로가 일부 파손된 것 외에는 이 지역에 대한 피해는 커보이지 않았다. 대책본부 책임을 맡고 있는 가토 씨는 “자원봉사에 자원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아직 해안가 피해지역은 경황이 없어 봉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선발대는 실질적인 피해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센다이 동쪽에 위치한 해안가 지역 타카시고 중학교로 향했다. 지진대책본부가 마련된 이곳 역시 쓰나미의 여파로 운동장이 시커먼 진흙으로 가득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 피해지역임을 직감했다. 다시 차를 돌려 해안가 인접한 나카노를 방문한 선발대는 이번 대지진의 참상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강물에 떠내려간 집, 개천에 거꾸로 처박혀 있는 자동차,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불탄 건물. 이곳에 마을이 있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처참했다. 해안에 인접할수록 경찰과 구급대원의 수가 많아졌고,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결국 도로가 끊겨 더 이상의 진입이 어려웠다. 해안가 최인접까지 도보로 이동한 선발대는 자동차에서 나온 휘발유와 섞인 시신 썩는 냄새가 곳곳에서 진동해 현장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잔해 위에는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가 맴돌아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연출했다.

피해지역 중심에 있는 센다이 시립 나카노초등학교 외벽에 걸린 대형 벽시계는 3월 11일 대지진 시각인 오후 2시 46분에 멈춰있어 당시 참상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또 일부 마을 주민들이 무너진 집 주위에서 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다. 선발대는 이날 현장조사와 더불어 즉석에서 쓰나미 희생자를 위한 추모기도도 마련했다.

쓰나미가 비껴간 센다이시 도심이라고 재앙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적지 않은 상점이 문을 닫았고 그나마 연 곳도 물건이 많지 않아 물건이 바다나면 일찍 문을 닫는다. 생필품을 사려고 길게 줄을 선 모습은 이곳에서는 낯익은 풍경이다. 또 수도와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유소 역시 기름이 많지 않아 12리터 주유하는데 무려 10시간 이상 걸리는 실정이다. 외부에서 물자지원이 들어와도 인력과 기름이 부족해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쉽지 않다. 또 3월 중순임에도 폭설과 이상저온이 기승을 부리는 등 주민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센다이 총영사관의 김정수 총영사는 “아직 가스공급이 이뤄지지 않지만 임시 피난소를 운영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교민과 센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선발대는 15일 오후 9시 나리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신주쿠에서 여장을 풀고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단은 선발대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본진파견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선발대 단장 묘장스님은 “현지 원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만큼 본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일본 센다이=허정철 기자

## 봉 축 기 도

은 누리에 가득하신 광명의 부처님,  
정갈한 마음으로 향 사르며 공양하오니  
한 줄기 향연이 법계에 가득하여  
부처님 회상 상서롭게 장엄하여지이다.

저희가 무량한 세월 착한 인연 뿌리내려  
금생에 ‘부처님 만남’의 꽃 피웠습니다.  
이제 가냘픈 신심이나마 여린 가슴에  
초발심의 촛불되어 타오르고 있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직 한 가지 중생을 청정케 하시고  
큰 깨달음의 길 열어 보여 주시려는 원력으로  
사바에 나투신 그 ‘오심’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찬란한 오월 떨리는 감격으로 님을 맞사옵니다.  
크나큰 가피와 은혜 그 빛나는 만남 위해 기도하옵니다.  
언제나 ‘부처님 오심’ 그 기쁨으로 가득하여  
오락의 삶 속에 한 송이 하얀 연꽃  
피워내기 발원하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는 불기 2555년 (2011년) 5월 9일 (양력)에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를 입재 및 연등을 만들기가 있었고, 5월 15일 일요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 회향 및 법요식을 가집니다. 또한 2555 번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국사에서 일년 연등 공양도 올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일년 연등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나 한국 불국사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일년 연등 및 일년 영가 연등 동참은 5 월까지만 접수 받습니다. 가족등 및 일인 일등 모두 접수 받습니다. 기도 동참금은 \$100.00 (한국은 십만원) 입니다.

##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1 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2010 년 11 월부터 애틀랜타 와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정기 법회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고 친숙한 경전중 하나인 “천수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4 월달에는 천수경 제 6 회째 내용으로 “관세음보살의 별원 중의 육향문 과 관세음보살의 열두가지 다른 이름”편 을 법문합니다. 꼭 법회에 참석하시어 “천수경”을 다시한번 음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한국으로 귀국하는 만설 권순철 거사님의 송별회도 같이 있습니다.
- 5 월 9 일부터 5 월 15 이까지 불기 2555 년 (2011)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칠일기도를 봉행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은 5 월 15 일 10 시 30 분에 있습니다.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봉축칠일기도와 일년연등 모연에 동참 바랍니다.
- 애틀랜타 부다나라 봉축법회는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Fort Yargo State Park 에서 야외법회 및 가족 운동회를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4 월 정기법회때 공지 하겠습니다.
- 그동안 애틀랜타 부다나라 정기법회에 동참하며 법회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정진했던 만설 권순철 거사님께서 4 월 중순경에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조지아 공대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한국에서 좋은 직장에도 취직이 된 만설 거사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두손모아 축원드립니다. 한국에서 안정이 되는 되로 부다나라 홈페이지 전체를 알차고 멋지게 업데이트해서 불자님들이 한눈에 부다나라의 활동상황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홈페이지 업데이트 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2011 년 3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54 번 갑인생 김정아, 155 번 무자생 조희영, 199 번 신묘생 조현준.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 (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한 평 불사: 정축생 박계정, 원주후인 원용기 영가 (정행 원상회 복위), 달성유인 서병희 영가 (정행 원상회 복위)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로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